

최고 구장에 맛집 즐비...원정팬 대거 몰려...숙박업 호황 '야구특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빛고을'의 경제·문화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LG의 2015 프로야구 개막전은 2만2000석 매진을 기록했다. 29일에도 1만3835명이 다녀가면서 광주가 들쭉였다.

통합원정단 1000여명과 개별로 티켓을 발권한 이들까지 3000여명의 LG팬이 광주에서 그라운드 밖의 봄을 즐겼다.

구단측은 타지역에서 온 KIA 원정팬도 3000여명에 이를 거라고 추산했다. 부부동반으로 1박2일을 보낸 만삭의 임신부, 바다를 건너온 제주도 아가씨, 경상도에서 온 KIA팬과 서울에서 온 경상도 출신 LG팬, KIA·LG팬 어우러진 직장 동료까지 다양한 이들이 광주에 집결했다.

LG 통합원정단 절반이 29일에도 경기장을 찾는 등 많은 팬이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다녀갔다. 덕분에 터미널과 역이 야구팬으로 북적였고, 신인동 일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경제·문화 명소로 급부상

숙박업소와 유흥업소도 야구 호황을 누렸다.

남동생과 야구장 나들이에 나선 김양진 씨는 "주로 고속버스로 이동하고 광주역 앞 모텔을 이용한다. 경기가 끝나면 송정역 근처에서 떡갈비를 먹거나 전대 후문 쪽에서 식사를 한다. 맛집도 많고, 수도권을 비해 티켓값과 숙박비로 저렴하다. 원정 예산으로 1인당 10~20만원을 잡는다"고 언급했다.

대전에서 다녀간 KIA팬 고동균씨도 숙

박비를 제외하고 티켓값·식비·차비 등으로 13만원 가량을 썼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챔피언스필드는 타지역 팬들에게는 꼭 찾고 싶은 경기장으로 꼽힌다. 야구장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하지만 야구장을 경제·문화 명소로 만들기 위한 구단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에서 고향을 찾은 류경미씨는 "야구장 시설도 좋고 맛집도 많지만 경기장 주변으로 이중, 삼중 주차된 모습이 부끄

럽다. 가족 단위로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모텔만 많다. 가족단위로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야구장 주변 상권이 있다면 근처에서 많이 먹고 돈을 쓸 것 같다. 경기 전·후로 터미널이나 역으로 이동하는 교통 수단이 아쉽다. 경기장내 먹을거리가 다양하지 않다. 경기장 주변이 혼잡해서 버스로 이동하기 불편하고, 걷기에도 위험하다. 경기장 편의 시설 위치, 관광지, 맛집을 소개하는 어플이 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LG 통합원정단의 박준삼씨는 "경기장이 깔끔하고 시설이 좋아서 기분 좋게 광주를 찾았다. 야구는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될 수 있다. 야구 외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재방문율을 높여야 한다. 전국 원정을 다니는데 부산은 둘러볼 곳도 많고 관광지 안내와 시설이 잘 돼서 가장 많은 이들이 원정을 간다. 부산 사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 오르면 약 0.15kcal의 열량이 소모되며, 약 4초의 건강수명이

동구 '사랑의 건강계단' 2일 광주시 동구 동구청사 1층에서 열린 '사랑의 건강계단' 준공식에 참여한 공무원·주민 등이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사랑의 건강계단은 이용객 한 명이 한 층을 오를 때마다 10원의 적립금이 쌓인다. 연간 최대 적립금은 1500만 원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서구 '백마산 승마장' 경찰, 특혜 의혹 내사 착수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서구 백마산 내 승마장 건설 부지 매각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일 김중식 서구청장이 임기말 광주 J건설 사주 아들에게 공시 지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부지를 매각한 과정의 불법성 및 승마장 건축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 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광주서부경찰은 2일 서구청 구유지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인허가 과정을 감사중인 광주시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감사 및 조사 서류 일체를 요청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구가 지난해 4월 28일 J건설 사주의 아들인 임모(37)씨에게 13억원에 매각한 서창동 280-1번지 등 12필지 14만4502㎡(4만3711평)에 건설 중인 승마장(면적 9815㎡)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 누락 등 위법성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계획 면적 5000㎡ 이상인 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서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히 김 전 청장이 임기 마지막 날 승마장 건축허가를 내주고 부지매각도 서둘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서연치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인민에서는 통상 환경영향평가가 2개월 소요된다는 점에서 승마장 건축허가를 김 전 청장의 임기내에 마무리짓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서구는 지난 2009년 신청사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마산 구유지를 팔기로 했다. 최초 감정가격은 34억8000여만원이었지만 유찰을 거듭하면서 지난 2014년 13억원에 매각됐다. 당시의 공시지가는 15억여원이었고 서구가 공고한 예정가격은 11억원에 불과해 헐값매각 의혹이 일었다. 서창동 주민과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풀릴 경우 수직 상승하고, 김 전 서구청장이 재임 중 수차례 서창동 그린벨트지역 해제를 추진 해왔던 점에 비해 매각 및 건축 인허가 과정 전반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J건설 측이 추진하는 승마장 건설과 우량농지 조성사업도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수순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구와 J건설 측은 "업무처리가 미숙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주민·환경단체는 지난 1일 서구가 처리한 백마산 구유지 매각 및 인허가 처리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8, 해질 18:55, 달뜨기 17:52, 달지기 05:29

'꽃놀이' 시샘 봄비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다. 예상 강우량 10~40mm

지역별 날씨 (°C)

Table with 4 columns: Location, Date, Temperature, and Weather icon. Locations include 광주, 서울, 대전, 부산, etc.



바다 날씨

Table with 4 columns: Direction, Time, Wind Speed, and Wave Height. Includes directions like 서~북서, 남서~서, etc.

생활지수

Table with 2 columns: Activity and Index value. Activities include 수면, 운동, 빨래.

주간 날씨

Table with 7 columns: Day (4th to 10th) and Weather icon.

무등산국립공원 서식 털조장나무 '노란꽃망울'

무등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인 털조장나무(사진)가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일 공원 내 서식하는 털조장나무가 본격적인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털조장나무는 4월 중순경 노란색의 꽃을 피우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일 가량 일찍 꽃이 피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무등산, 조계산(전남) 등 제한된 지역에만 분포하며 학술적 가치도 높은 희귀식물이다. 무등산에서는 원효봉 일원, 옛길 2구간 등에서 털조장나무를 관찰할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013년 12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공원을 대표하는 동·식물(깃대종)로 수달과 털조장나무를 각각 선정하고 보호에 힘쓰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SNS 교통사고 글 올리면 경찰 즉각 출동

교통안전기본계획 하반기 시행

교차로 캠코더 단속 전국 확대

올해 하반기에 운전자가 트위터에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내용을 올리면 경찰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일제히 전국의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캠코더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교통안

전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하반기 중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교통사고 관련 글을 교통정보센터에서 자동으로 검색해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예컨대 SNS에 '교통사고', '정체', '꼬리물기' 등의 단어를 인식해 해당 사실을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2000+ Housing' featuring apartment mortgage and loan services. Includes text: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Lists contact info for '빛고을새마을금고' branches.